

코로나19 여파 기업·가계빚 더 늘었다

광주·전남 7월 여신 한달새 1조·전년比 10조 ↑
서민 가계대출 증가·저금리 속 ‘빚투’ 등 맞물려

지난 7월중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 수신은 전월의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된 반면 여신은 전월에 비해 증가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기업과 가계의 빚이 한달 만에 1조원 넘게 늘어났다. 이는 작년과 비교하면 10조원 이상 불어난 것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서민들의 가계대출 증가와 저금리에 빚내서 투자하는 ‘빚투’ 등이 맞물린 탓으로 보인다.

23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지역 금융기관 7월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여신(대출)은 전달과 비교해 1조3천38억원 증가했다. 6월 증가 폭 4천789억원에 비해 무려 8천249억원, 2배 이상 늘었다. 예금은행 여신은 전월의 감소(-266억원)에서 증가(+6천943억원)로 전환했다. 기업대출은 부가가치세 납부, 코로

나19에 따른 기업의 자금 수요 증대 등으로 중소기업대출이 늘어나면서 증가 전환(-2천43억원 → +2천763억원)했다.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1천420억원 → +4천185억원)됐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여신은 증가 폭(+5천55억원 → +6천95억원)이 더 확대됐다. 상호저축은행(+60억원 → +724억원)은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모두 늘어나면서 증가폭이 확대됐으며, 수출입은행 등(-1천32억원 → +229억원)은 증가로 전환했다. 상호금융(+3천835억원 → +3천423

억원)과 새마을금고(+1천172억원 → +678억원)는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축소됐으며, 신용협동조합(+1천68억원 → +1천46억원)은 전월의 증가세를 유지했다. 여기에 저금리 기조에다 증시 열풍, 아파트 투자 등이 맞물리면서 이른바 ‘빚내서 투자’하는 ‘빚투’도 적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7월 말 잔액 기준 총 대출은 108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68조원보다 11조6천억원이 늘었다.

특히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27조3천800억원으로 1년 전 24조200억원보다 3조원 넘게 늘었다. 예금은행과 비은행권 기관의 총 여신 잔액은 65조2천300억원과 43조1천900억원에 달했다. 한편, 7월 수신은 전월(1조5천168억원)증가에서 감소(-6천873억원)로 전환됐다. 예금은행은 수시입출식예금, 정기예금 등이 줄어들면서 증가(6천841억원)에서 감소(-1조1천368억원)로 전환됐고,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축소(8천327억원 → 4천495억원)됐다. /임후성 기자

● 투데이 경제



농협은행 광주본부, 청소년 장학금 후원

NH농협은행 광주본부는 23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광주시교육청을 방문, 가정형편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 2천만원을 전달했다. 장학금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기탁된 후, 교육청에서 추천한 돌봄이웃 청소년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최영 광주본부장은 “광주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열렬히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성 기자

전남농협, 취약계층 밀반찬 나눔 봉사

김치·장조림 등 200여가구 전달

농협전남지역본부는 23일 (새고향주 부모임전남도지회 (이하 전남도지회)가 코로나19 대면활동 최소화로 사각지대에 놓인 농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밀반찬 나눔 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전남농협과 농협영암군지부·신북농협 후원으로 봉사활동에 나선 전남도지회 회원들은 코로나19 예방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직접 담근 김치와 조리한 장조림 등을 포장해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 200여 가구에 밀반찬을 전달했다.

전남도지회는 최근 집중호우로 어려움에 부딪친 수해 가구를 찾아 가재도구 정리, 농촌 일손돕기 등으로 시름에 빠진 피해 농가를 위로했다. 회원들은 정례적으로 이·미용 봉사, 말벗 서비스, 취약가정 세탁과 청소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석기 본부장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나눔을 통한 사랑을 실천해준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면서 “복지사각 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살피며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은성 기자



광주은행 대학생 홍보대사 발대식

광주은행은 지난 22일 광주은행 대학생 홍보대사 30명을 선발해 발대식을 가졌다. 올해로 10기를 맞이한 광주은행 대학생 홍보대사는 오는 12월까지 4개월의 활동기간 동안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광주은행 브랜드 홍보 등을 수행한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 구인시장 8월 ‘반짝 성장세’

지역업체 식품생산직 업종 등 고용 활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얼어붙었던 광주 고용시장이 8월 들어 반짝 성장세를 보였다. 올해 광주지역 8월 월평균 구인광고 게재건수는 6만4천883건으로 지난해 동기(6만350건)대비 7.5% 가량 증가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생산직이 주된 증가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생산직 8월 한 달간 게재건수는 7천37건으로 지난해 대비 32.7% 증가했다. 지난해 생산직 8월 게재건수가 5천301건인 것과 비교해봤을 때 1천700건 가량

을 회복했다. 생산직을 포함해 고용시장 전반이 회복세를 보이는데 따라 향후 거리두기 완화 등에 따라 시장 규모 확대가 점쳐지는 상황이다. 올해 광주지역 8월 월평균 구인광고 게재건수는 6만4천883건으로 지난해 동기(6만350건)대비 7.5% 가량 증가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생산직이 주된 증가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생산직 8월 한 달간 게재건수는 7천37건으로 지난해 대비 32.7% 증가했다. 지난해 생산직 8월 게재건수가 5천301건인 것과 비교해봤을 때 1천700건 가량

증가한 셈이다. 특히 식품생산직 업종에서 비교적 큰 폭 증가했다. 올해 8월 식품생산직은 전년 동기 대비 37.7% 증가했다. 사랑방구인구직 관계자는 “배달음식 및 간편식 소비 등 집밥 문화 확산에 따라 가공식품 생산공장의 인력 채용 규모가 늘어나면서 생산직 전반의 고용시장 활성화를 견인한 측면이 었 보인다”며 “지역 사회 속 코로나19 이슈가 잠잠해질 무렵 채용공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거리두기 및 방역 등 코로나19 대응이 잘 이뤄진다면 고용시장 활성화를 지켜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임후성 기자

전남건축사회-영무파라드호텔 업무협약

대한건축사협회 전남도건축사회는 주식회사 영무파라드호텔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1일 대인동에 소재한 문화복합공간 ‘김백과’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대한건축사협회 전남도건축사회 조연준 회장과 영무파라드 박헌택 대표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사진>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난 7월 개관한 부산 해운대 영무파라드호텔을

대한건축사협회 전남도건축사회 회원들이 이용시 특별 요금을 적용하는 등 두 기관의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업무협약으로 인한 혜택은 회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조연준 회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지친 회원들의 휴식과 힐링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은성 기자

광주농협 ‘여성농업인 정책 골든벨’ 예선

농협 광주본부와 농가주부모임 광주시연합회 회원들은 지난 22일 광주시 남구에 소재한 야외 정원에서 ‘知彼知己면 나도 알짜農(여성농업인 정책 골든벨)’ 광주 예선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광주 관내 13개 지역농협 농가주부모임 회원 15명은 3차에 걸친 치열한 지식 대결을 통해 고득점 순으로 3명을 선발했다. 선발된 인원은 추후에 있을 전국 본선에서 광주지역을 대표하게 된다. 강형구 본부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농업·농촌 현장에서 유용하게 지원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은성 기자

LX곡성구례지사, 언택트 사랑나눔

한국국토정보공사(LX) 곡성구례지사는 추석을 맞아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속 ‘언택트(Untact, 비대면) 사랑나눔’ 활동을 전개했다. LX곡성구례지사는 수해피해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곡성군 및 구례군에 각각 성금을 기탁했다. 이번 사랑나눔 활동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별도의 전달식 없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홍영아 LX곡성구례지사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주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성금을 기탁했다”며 “우리 사회에 나눔과 기부로 따뜻한 사회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후성 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http://www.kukje9.co.kr

“맛과 멋을 새롭게”
출장뷔페 전문외식산업

자매회사:제사나라 062)527-0044/011-602-2278

야외 결혼식

칠순잔치

체육대회

야유회

국제외식산업(주) 문의.062)262-2278/011-602-2278

CMYK